metro

메트로 2014년 5월 13일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이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늘어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직접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아닌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보니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회구적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상형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보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때가 바뀌고 세월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어떤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 맘에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특징,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1 오프라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눈다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구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코미디의 길' MBC 살릴까

metro
메트로 2014년 5월 13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출루 머신 추신수 건재하나

'철없는 아들'과 정몽준의 눈물 /연합뉴스

삼성호 3세 경영 포석 '조용히…'

이건희 회장 건강 시나리오

비상체제 구상없이 평소대로 차분한 분위기 삼성SDS 상장 등 사업구조 재편 속도낼 듯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삼성그룹의 사업구조 재편과 3세 경영 승계 시나리오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12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틀째 입원해 있는 이건희 회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심장박동 보조기구인 에크모(ECMO)를 모두 떼어내는 등 건강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준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회장이 저체온 치료를 받고 있어 13일 오전이면 의식 회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차분한 분위기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팀별 주간회의도 그대로 진행됐으며, 매주 수요일 열리는 사장단 회의 역시 예정대로 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이 회장이 병원에 있지만 별도의 비상경영은 구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고, 1942년생으로 올해 만 72세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던 삼성그룹의 사업구조 재편과 경영권 승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이 회장의 '마하 경영' 기조에 맞춰 사업구조 재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지난해 9월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문을 삼성에버랜드에 이전하고, 지난 3월 제일모직을 삼성SDI와 합병하기로 했을 때도 사실상 그룹 경영권 승계와 연계해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8일 비상장사인 삼성SDS의 연내 상장을 결정한데 이어 9일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지분 100%를 인수하는 등 계속된 계열사 재편을 두고 재계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1.2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9%),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사장(3.9%) 등 이 회장의 3남매가 집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의 상장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SDS가 상장하면 3남매가 2조원 가까운 차익을 거머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렇게 확보된 자금으로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매입하거나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 상속받는 등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곳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만큼 '3세 경영'에 가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yd402@metroseoul.co.kr

더 완전한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조용한 선거 도와주세요" 세월호 참사 주연힌 후보로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박원순(가운데) 전 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한길(왼쪽), 안철수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국회에서 "세월호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금에도 분위기에 맞게 작고 조용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뉴시스

정몽준, 박원순과 맞대결

새누리 서울시장 후보경선 압도적 승리로 확정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경쟁 후보인 김황식 전 총리와 이혜훈 최고위원을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현 시장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현장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쳐 총 3198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전 총리와 이 최고위원은 각각 958표와 34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막내아들의 페이스북 글과 부인 김영명 씨의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당원 표심을 지키며 경선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는 이날 당선인사에서 "오늘의 승리는 당원의 승리, 국민의 승리"라며 "김황식 후보의 경륜과 이혜훈 후보의 정책을 합해 반드시 서울시를 탈환하겠다. 서울시민의 꿈과 비전을 하나도 빠짐없이 서울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외쳤다.

이어 막내아들의 세월호 사고 관련 글 논란을 언급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아들의 철없는 짓을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혜정기자 h@metroseoul.co.kr

'모세의 기적' 계속 되려면…

기자 수첩
천효진
<연예스포츠부 기자>

SBS '심장이 뛴다'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며칠 전 서울 시내 한복판에 긴박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도로 위 빼곡했던 자량들이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방송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뛴다'는 연예인이 구급 대원 일을 체험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는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를 올해의 목표로 삼았다. 방송에선 골든 타임 준수의 중요성을 일리며 용어 영화 감독과 공익 광고를 제작하거나 기적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청을 받는 공익 활동도 하고 있다.

그러나 모세의 기적이 일상화되려면 관련 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 방송은 종영을 앞두고 있는 유한한 콘텐츠고 프로젝트 진행이 끝난 이후에도 모세의 기적을 실현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에 출연한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도 국회의원과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심장이 뛴다' 관계자는 "출연 연예인들과 국회의원이 '모세의 기적'과 관련해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며 "많은 일들이 겹쳐 잠정 보류됐지만 만일 토론회가 열리고 법제화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모세의 기적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안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말이 실천되길 바란다.

민정수석실 비서관 내정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우병우(사시29회)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내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우 내정자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또 공석인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원비서관에 판사 출신인 권오창(사시26회), 김학준(사시31회) 김앤장 변호사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민정수석실 비서관 3명을 한꺼번에 내정함에 따라 지난 1월 바뀐 법무비서관을 포함한 민정라인 비서관 4명은 모두 교체됐다. /조현정기자

'공명선거' 손잡은 7대 종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3일 앞둔 12일 오후 서울 종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7대 종단 종교지도자 회의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온 누리에 퍼지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적힌 캘리그라피 앞에 빨간색 잉크로 선거 마크를 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전면 재점검"

경찰, 세월호 계기 TF 구성 이달까지 완료

경찰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점검에 나섰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12일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TF를 구성했다"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위기관리 체계 개선과 교육·훈련 강화 방안 등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소방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 매뉴얼의 개선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은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6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사고를 냈으며 이들에게는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 청장은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언비어 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뉴시스]

뉴스&뉴스

지방선거, 거동불편자 13~17일 접수 우편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병원 지택 등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를 13~17일까지 받는다.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등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방연구원장 한홍전·국방과학연구소장 정홍용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한홍전 예비역 중장(육사 32기)이 12일 내정됐다. 육군 인사사령관을 지낸 한 예비역 중장은 16일 공식 임명된다.

무기개발을 총괄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에는 정홍용 예비역 중장(육사 33기)이 임명됐다.

"北, 나라도 아냐… 빨리 없어져야"

국방부 대변인 무인기 도발 부인에 강경 비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무인기 도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12일 "북측이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북한이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하는 광명성 1호기 위성은 궤도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광명성 1호기 계속 방송을 내보낸다고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다"며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 거짓말하는 역사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북한의 말을 유의미하게 안 써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신문에서 로켓포를 장착한 AN-2기의 훈련 모습을 공개한 것을 두고 기자들이 '어느 정도 위협인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현정기자

유병언 장남도 소환 불응

재출석 요구…차남·장녀 등과 함께 강제 구인 검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주)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배임·조세포탈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균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대균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 수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를 비롯해 ㈜다판다(32%), 드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혁기씨와 함께 서류상 회사(㈜에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기울어진 오피스텔 '위태위태' 1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신축 중이던 한 오피스텔 건물이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져 안전진단 전문가와 소방 관계자들이 관찰·주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승무원 3명 의사자 인정

복지부, 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승객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3명을 비롯해 지난해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 캠프 사건에서 친구들을 구하다 사망한 학생 등 총 8명이 의사자와 의상자로 각각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씨를 비롯해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영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끝내 숨진채 발견됐다.

이들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에 대해서는 신청자인 남양주시의 추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또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친구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준형(당시 18) 군과 2012년 인천 페인트원료 창고 화재때 추가 피해를 막으려다 사망한 오광석(60)·박창선(54) 씨도 의사자로 인정했다.

또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를 당해 부상한 최석준(45) 씨와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 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장윤희기자 unihe@

한인 세월호 애도 집회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본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인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미시USA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지아·미시시피·앨라배마 등 미국 동남부에 사는 7가여명의 동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구조 미흡' 해경 수사 초읽기

세월호에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선장·3등 기관사·조타수의 구속기간이 16일 만료됨에 따라 이들 3명을 기소하면서 구속된 다른 승무원 12명도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며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당시 교신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경 관계자에 대한 소환은 아직 한 차례도 없었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를 받고 원반인어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를 물어 시간을 허비한 해경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한 사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내에 수백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무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선내 진입도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김민준기자

4·5층 선내 '붕괴 위험'

"다른 진입로 뚫기로"

침몰한 세월호 내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4·5층의 일부 장소에 대해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벽을 뚫고 진입을 시도할 방침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2일 "장애물로 접근이 어려운 4층 선미 좌측 다인실에 대해 선미 중앙 다인실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쇠지렛대 등으로 벽면을 뚫고 진입하는 방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현재 4층 선미 중앙 다인실 벽면 일부가 휘어지면서 좌측 다인실 벽면에 맞닿아 사이 통로가 거의 막힌 상황이라 새 진입로 개척 등이 제시됐지만 선미 중앙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다른 곳들에 대해서는 잠수사 안전을 고려해 투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4층 선미 다인실 쪽으로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나 현장에서 추가 위험이 감지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다혜기자 ydh@

'금천 일자리 발굴단' 운영

서울시 금천구가 '금천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자리 발굴부터 취업 알선까지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성동구 풋살 경기장 개장

서울시 성동구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풋살 경기장을 12일 개장했다. 경기장은 용답동과 금호동에 국제규격 규모로 조성됐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전화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무료다.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개소

서울시 중랑구가 오는 14일 상봉동 소재 프레미어스엠코 C동 지하2층에서 중랑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중랑드림웨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서울천호동우체국 개국

서울천호동우체국이 12일 신축 청사의 문을 열고 지역주민을 위한 우정서비스를 시작했다. 신축한 청사는 강동구 구천면로 188에 위치하며 연면적 449(㎡)에 지상 3층 건물로 우편서비스는 1층, 금융서비스는 2층에서 제공한다.

현 동양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

3700억대 자산증가 효과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동양그룹은 시세조종으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2일 현 회장과 김철(38·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 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운 개인투자자 강모(44)씨 등 4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하고 현 회장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현 회장은 2012년 3월16일 동양시멘트 주식을 저가에 내다팔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블록세일' 예정가를 맞추기 위해서다. 동양시멘트 주가상승으로 동양그룹은 3735억원의 자산증가 효과를 얻었다. 이어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원활히 발행하려고 두번째 주가조작을 꾸몄다. 동양그룹은 단기사채를 팔아 120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배민욱기자

서울 정체 심한 곳 '홍대 앞'

도심 평균 통행속도 18.7km…금요일 오후 가장 심해

서울에서 가장 차가 밀리는 곳은 홍익대 정문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2일 76억 건의 통행 속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2013년 서울시 차량 통행 속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체 도로의 일 평균 통행 속도는 26.4km/h를 기록했다. 도심에서는 통행 속도가 18.7km/h, 외곽에서는 26.6km/h였다.

도로별 속도는 도시고속도로(59.0km/h), 주간선도로(26.6km/h), 보조간선도로(23.6km/h) 순으로 낮았다.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한 곳은 홍익로(홍익대 정문앞)로 일 평균 통행 속도는 12km/h에 불과했다.

수표로(12.4km/h), 청계로(13.5km/h), 마른내로(15.0km/h), 양산로(15.4km/h), 청계천로(15.5km/h), 남대문로(16.4km/h), 역삼로(16.4km/h), 면목로(16.9km/h), 상계로(16.9km/h)도 통행 속도가 낮았다.

시간대별로는 금요일 오후(21.6km/h)가 가장 혼잡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의 통행 속도가 가장 낮았다. 강북구 도로 중에서는 통행 속도가 비교적 높은 도시고속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비중이 작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데이터는 시험 차량을 이용해 통행속도를 분석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카드택시 3만1000여 대의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자료를 활용했다. 시는 속도보고서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홈페이지(http://traffic.seoul.go.kr/)에 공개했다. /김민조기자 mkim@metroseoul.co.kr

"도심에서 모내기해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운상가 옥상에서 열린 도심 속 전통 모내기 체험행사에서 미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를 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보루네오가구 회생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2일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루네오가구는 본사 공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 담보권 대부분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출자전환 등으로 채무 부담이 대폭 경감됐고, 영업실적도 점차 개선돼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의 실현이 예상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 신청 당시 심각한 상황이던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상생협약을 체결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주요 채권자들도 보루네오가구의 회생절차 종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정·사무·주방용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자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윤다혜기자 yul@

서울YWCA, 신혼부부 참가자 모집

서울YWCA는 유한킴벌리와 함께 '2014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다음달 21일, 28일 2회에 걸쳐 개최한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 학교는 생명과 가족, 아름다운 부부관계에 대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기획됐다.

유한킴벌리·서울YWCA 공동 주최
2014 생명을 사랑하는 신혼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행복한 부모되기, 준비 시작하다!
2014.6.21(토)
2014.6.28(토)

이번 2014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는 결혼의 의미,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집단중심극인 소시오드라마와 부부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신혼기 부부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서로 이해하게 하고, 부부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가 되는 준비를 도와준다.

강사는 소시오드라마 전문가인 김영한 일자리사회심리연구소 소장과 가족상담 및 부부갈등조정 전문가인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장소는 중구 명동에 소재한 서울YWCA이며, 신혼부부 200여명이 참석한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커플티도 무료로 증정한다.

모집은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유한킴벌리 웹사이트(http://www.yuhan-kimberly.c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커플당 1만원이며, 당일 행사 참가시 환급된다.

metro HongKong

村官打記者 自稱「高

metro France

Des bons plans test approuvés par les é

대학생·시민 함께 만든 관광책자

프랑스 툴루즈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이 만든 관광책자가 출간된다. 특히 이번 책자엔 툴루즈비즈니스스쿨(TBS)의 재학생 50여 명이 직접 테스트한 600여개의 리스트와 비·상점 리스트도 담겨졌다. 책자 초판엔 총 1만 2000여 곳의 툴루즈 볼거리가 담겨있었지만 이번 6번째 개정판에선 총 1만5000가지의 다양한 툴루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TBS의 동아리 회장 기욤 카어는 "책자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etro Russia

'미녀 검찰총장' 업무 시작 '인기'

빼어나 미모를 자랑하는 크림자치공화국의 신임 검찰총장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33). 최근 그가 러시아연방 연방의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포클론스카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로루시는 모두 소비에트연방에서 갈라져 나온 한 뿌리"라고 말했다. 한편 포클론스카야는 연약한 행사는 외모로 러시아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다. 그의 브리핑 동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2만건을 기록했다.

metro Canada

130일간 스키 타고 '퀘벡' 종단 4인 눈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스키를 타고 퀘벡주 북부까지 종단한 팀이 주목 받고 있다.

실제로 스키를 타고 동일 노선을 130일을 여행한 팀은 1980년 단 한 번 뿐이다. 지난 7일 최종적으로 몬트리올에 도착한 이들 중 팀원 마리 앙드레 보르당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식량 문제였다. 최종 목적지인 쿠주악까지 가려면 영하 40도의 날씨를 염두에 두고 체중도 관리해야 했다"고 밝혔다.

1980년에 성공한 팀과 다르게 이 팀은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엔 여성 한 명도 포함돼 있었다. 팀의 대표 자콥 라신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성 팀원이 특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사용해 잘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팀원들은 퀘벡주 종단 중 특히 관절에 문제가 오는 등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팀원 브루노 피에르 쿠튀르는 "어떤 곳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다. 밖에서 자야했기 때문에 힘남을 이용했다. 하지만 30분 간격으로 일어나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음식을 먹으며 체력을 보충했다"고 밝혔다.

130일간 매일 18km를 꾸준히 걸은 이들은 여행 기간 내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알렸다. 여정을 마친 이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130일의 여정을 한 건 단순한 열정 때문이 아니다. 그보단 퀘벡의 겨울이라는 매력과 설경이 우릴 떠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팀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1980년 첫 종단 팀원 중 두 명이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 1980년 원정대의 대장이었던 앙드레 리베리에르는 "34년이 지난 오늘 예전의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마티아스 마르샬 기자

정리=정주리 번역기자

"돈 많아도 버스 운전이 좋아요"

5층 빌라에 BMW 타는 '갑부 기사'…버스 운전대 잡은지 18년

중국 충칭시에서 126번 버스를 운전하는 숭웨린(宋曜林·41) 버스 운전대를 잡은지 올해로 18년째다. 그가 다른 버스기사들과 다른 점은 자산 형편이 유달리 풍족하다는 것. 5층짜리 빌라에 BMW와 혼다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다.

숭웨린이 버스 운전을 해서 버는 돈은 월 4000위안(약 66만 원) 정도다. 가계에 별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그는 매일 오전 5시 20분에 일어나 하루의 고된 일과를 시작한다. 그는 버스 운전이 주는 즐거움은 BMW나 빌라로 채울 수 없다고 말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출근용으로 혼다 승용차를 사줬지만 그는 대부분 걸어서 출근한다.

숭웨린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스물세 살 때부터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했다. "처음 핸들을 잡았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집세를 처음 냈을 때 등 버스운전으로 느끼게 된 모든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버스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는 매일 차 안팎을 꼼꼼히 닦는다. 회사 규정에 따라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면 청소 담당 직원이 차를 청소한다. 126번 버스 담당자는 숭웨린의 차는 거의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친절한 버스 기사로 지역에서 인기도 높다. 승객이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넘어지지 않게 손잡이를 잘 잡으세요"라고 말하며 살뜰하게 챙긴다. 또 자주 승차하는 승객과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인사를 주고받는다.

숭웨린의 진인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왜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간단하다. 버스 운전 일이 즐겁다는 것. 가족들도 일을 그만두라고 권유하곤 한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은 항상 자아를 실현해야지, 상황에 따라 일을 쉽게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며 그의 일을 지지한다. 어려서부터 단골에서 일한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숭웨린은 어머니로부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

특수 업종 은퇴 시기에 따라 숭웨린은 4년 후 은퇴하게 된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4년 후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할지 모르겠다.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승객들을 위해 운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직장인 76% "퇴근 후에도 업무 걱정"

직장인 10명중 8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006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나 주말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75.6%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 재직자가 80%로 '중소기업'(73.5%)보다 연락 받은 경험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응법으로는 '무조건 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많았다. 골라서 받는 편은 30.5%, 모두 받지 않는 편은 3%였다.

연락을 받은 후 회사로 복귀한 적 있다는 응답자는 64.9%에 달했다.

한편 직장인 2명 중 1명(45.5%)은 퇴근 후나 주말에도 회사 일을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장급 이상(64.3%), 과장급(54.2%), 대리급(48.9%), 사원급(40.7%) 순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일 걱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철기자 kmlee@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1964.64	(+8.35)
코스닥	551.40	(+1.21)
금리	2.85	(+0.01)
환율	1024.40	(-1.60)

뉴스&뉴스

이것이 통큰 런닝 롯데마트는 통큰 이티셔츠 런닝 1박스(5개입)를 1만20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해킹 피해 보상해 드려요

●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나왔다.

한국정보인증은 해킹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공인인증서인 '든든인증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든든인증서는 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와 보장성보험 상품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보장형 공인인증서로, 피싱, 메모리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금융거래를 보호한다.

특히 든든인증서 발급 이후 사용기간 내 해킹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해 준다. /서승희기자

거주자 외화예금 584억달러

●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은 584억2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73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내 외국인을 뜻한다. 한은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자익거래를 위한 위안화 예금 증가세가 이어진데다 달러화 예금이 기업의 수출입대금 예치로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환율 폭탄' 중소기업을 구하라

금융권 잇따라 지원사격… 환리스크 설명회도 눈길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과 중국 위안화 변동성, 엔저 여파 등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이들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에서는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안을 잇따라 내놓는 한편 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 환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 예미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1050원을 내어준 환율 등으로 비상이 걸린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에 금융지원 등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활로를 모색한다는 의미다.

우선 신한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베트남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계획 중인 기업들에 현지 공장설립과 기계설비 도입 등 현지법인 투자에 드는 자금을 외화(USD) 대출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자원·인프라 등 해외사업과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직간접투자 형태로 공동 참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외사업 관련 정보 교환, 투자관점 조사와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도 함께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기술보증기금과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사후송금결제를 이용하는 신용등급 BB 이상, 180일 이내의 사후송금방식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85% 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한다. 기업은행은 이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연간 수출실적 3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에는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을 보상해주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요율도 가입해 주기로 했다.

수출입 등 기업들의 실무를 위한 아카데미도 열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외환거래처 실무 직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인 '제14기 신한 수출입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수출입 아카데미는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의 실무 담당자를 초청해 수출입과정 등 다양한 직무연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에는 110개 거래 기업고객 임직원 160여명이 참가했다.

경남은행도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경남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 1기 S-KNB 금융·무역 아카데미 클래스'를 개강했다.

오는 7월 9일까지 매주 1회 실시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세무 등 경영관리와 수출입실무·관세업무·환리스크관리업무 등 무역실무, 금융상품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손교덕 경남은행장은 "S-KNB 금융·무역 아카데미 클래스는 지역 중소기업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마련한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사업"이라며 "실무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연수 내용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산업현장 안전 중소기업이 앞장섭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경제활력 다짐대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현장에서의 안전실천과 문화확립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인 GDP 2만4000달러

세계 33위 … 5년새 8단계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33위를 기록해 5년 전보다 여덟 계단 상승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입수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GDP를 인구로 나눈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만4329 달러로 전 세계에서 33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의 2만2590 달러보다 1739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한국의 달러표시 1인당 명목 GDP 순위는 2008년 41위에서 2009년과 2010년 37위, 2011년 36위, 2012년 34위에서 2013년 33위로 해마다 조금씩 올랐다.

지난해 기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11만423 달러였다. 노르웨이(10만318 달러), 카타르(10만260 달러), 스위스(8만1323 달러)가 뒤를 이었다.

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나라는 키프로스(32위, 2만4761 달러), 사우디아라비아(31위, 2만4847 달러), 오만(30위, 2만5288 달러) 등이다.

실질적인 소비 가능 수준을 보여주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3189 달러로 세계 27위를 기록했다. /김민지기자 min@

대기업 10여곳 구조조정

이번 주 최종 선정

올해 대기업 최대 10여곳이 금융당국과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최근 건설과 조선, 해운 업황이 크게 악화하면서 지난해보다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이 3~4곳 늘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올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현대그룹 등 10여개사를 이번주 안으로 최종 선정한다.

채권단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빚이 많은 42개 주채무계열 가운데 개선 대상을 선별 중이다.

올해 주채무계열로 분류된 기업은 42개사로 지난해 30개사보다 12곳 급증했다.

STX와 대한전선, 성동조선은 이미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으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보다 높은 수위의 자율협약 단계로 넘어갔다.

금호아시아나 역시 워크아웃 중이다. 동부와 한진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이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선, 해운, 건설 등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업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을 3~4곳 새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종 선정 대상 10여곳엔 핵심자산 매각과 인원 감축과 같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해 STX 등으로 거액의 대손충당금 때문에 상황이므로 올해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광희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833

로드토크쇼

고성국의 빨간 의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길을 만든다

5월 14일 |수| 오후 6시 50분 tvN 방송 / 매주 수요일 방송

미국 고용시장 꿈틀

테이퍼링 가속화되나

미국 고용시장이 호전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지난 4월 실업률이 6.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의 6.7%에서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08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28만8000건 늘었다. 이는 전월의 수정치 20만3000건 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2012년 1월 이후 2년 만에 크게 늘어났다. 특히 기업들의 고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민간 부문의 고용이 27만3000건 늘었다고 밝혔다. 전달에 비해 7만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지표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적완화 축소를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방준비은행장들도 "연준이 빠르면 오는 10월 양적완화를 종료할 것"이라는 의견을 잇달아 밝혔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장은 최근 미국 뉴올리언스의 지역 금융인 행사에 참석해 오는 10월 양적완화 종료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피셔는 "이 추세로 가면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가 오는 10월 월 150억달러로 줄어들 것"이라며 "그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것까지 정리하면서 테이퍼링을 끝내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도 "연준이 오는 10월이나 늦어도 12월에는 양적완화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록하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 중반 시작될 것으로 본다"면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선훈기자 [illegible]

원금보장 고수익 제시 의심!

금감원 부동산 투자 주의보… 유사수신 12개업체 적발

부동산 침체를 틈타 원금보장은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갓 퇴직했거나 여윳돈을 굴리려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원금보장에 고수익까지 준다"는 광고에 현혹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보상받을 방도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펜션, 웨딩컨벤션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자금을 모집한 12개 업체를 유사수신 혐의로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침체를 틈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펜션 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하면 연 30~60%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

서울의 H사는 제주에 신축하는 호텔을 1억200만원에 분양받아 임대운영을 위탁할 경우 5년간 임대료로 연 11.5~15%의 확정수익을 보장받는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또 4년 후 계약만기가 되면 분양금액만큼 되사주거나 재임대해주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서울의 N사는 지방 소재 펜션 인수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15%(연 60%)를 지급하고 자사의 주주로 만들어준다고 광고했다.

지방의 K사는 분양 중인 웨딩컨벤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의 수익금(연 30%)을 보장하고 원금은 타 금융사 지급보증이 된다고 광고하며 자금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광고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광고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법령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업체들이 수년 뒤 광고에서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원천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는 향후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의 보장 내역이 지켜질 수 있는지 여부를 업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실상 마케팅의 일환일 뿐, 보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춘 곳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4월 혐의업체 총 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투자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 투자 5곳, 농수산물 투자 3곳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투자자는 모두 잠재적인 사기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대로 금감원(국번 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채윤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원·달러 900원까지 떨어질까

하반기도 하락 가능성 높아

원화 강세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는 하반기 900원까지 내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지난달 1일 이후 3.51% 상승했다.

환율의 가파른 하락에 당국은 지난 9일 외환시장에 긴급 개입해 환율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당시 환율은 장중 1020원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선 당국이 1020원을 1차 저지선으로, 1000원을 2차 저지선으로 설정하고 환율 급락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국의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해 하반기 900원대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속속 이같은 시각을 제시했다.

미쓰비시도쿄UFJ는 연말에 환율이 975원으로, 웰스파고는 990원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IB들도 예상 수준은 조금씩 다르면서도 환율이 하락할 것이란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해외 IB는 환율 하락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외환은행의 경우 올해 말까지 환율 하락이 지속된다고 예상했다.

다만 하반기 미국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서면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화 강세가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illegible]기자

32형 LED TV가 20만원대 홈플러스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전국 138개 전 점포에서 엑스싸이(XPE670) 32형 LED TV를 25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 제공

모든 종목 단주거래 허용

코스피 거래 활성화 기대

한국거래소는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다음달 2일부터 코스피시장 모든 종목의 단주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주권(5만원 미만)과 DR, 수익증권의 매매수량 단위가 현행 10주에서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1주로 축소된다.

ETF(1좌)와 신주인수권증권·증서(1증권 증서), ELW(10증권)는 현행 단위가 유지된다.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라 시장 관리 기준도 정비된다.

동시호가 수량배분 기준이 현행 10배→50배→100배→200배에서 100배→500배→1000배→2000배로 바뀐다.

이번 조치로 침체된 증시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과거 5만원 이상 고가주의 매매수량단위를 축소했을 때 해당 종목의 호가건수와 호가수량이 각각 16.7%, 18.7%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가입자 급증, 보조금 때문 아냐

KT "저가폰 전략 주효"… 경쟁사 흑색선전에 법적대응

KT가 최근 영업재개 후 가입자 급증에 따라 경쟁사가 제기한 불법 보조금 논란에 대해 "확 바뀐 영업력과 2배 빠른 영업조직 덕분"이라고 일축했다.

임헌문 KT 부사장(커스터머부문장)은 12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사보다 보조금을 많이 썼는지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다"며 "경쟁사의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임 사장은 "지난달 27일 영업을 재개한 후 이달 9일까지 총 15만3000여명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했다"며 "실적이 좋다보니 무조건 불법 보조금 때문이라고 경쟁사가 몰아붙이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이 같은 성과는 영업조직 정비, 마케팅 전략 차별화 등 남다른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임 부사장은 "KT는 기존 236개 지사를 79개로 광역화하고 하부조직으로 131개 지점을 신설하는 등 현장을 '빠른 조직'으로 탈바꿈 시켰다"면서 "여기에 '1등 KT' 도약을 간절히 바라는 전 임직원들의 꿈과 열정이 더해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선 영업현장의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 임직원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연휴동안 전국 곳곳을 누비며 마케팅 활동에 전념했다.

어린이날 놀이공원을 찾은 가족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인형 탈을 쓰고 풍선을 나눠주는가 하면, 젊은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 거리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일부 영업 직원들은 [illegible]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직접 발로 뛰는 마케팅에 나섰다.

임 부사장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뛰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인식이 현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올해 새로 오픈한 매장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배 증가했고 대리점들의 단말기 확보량도 연초 대비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매비용 부담을 낮춘 '저가폰 전략'도 주효했다. KT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번호이동 고객 중 출고가 인하와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의 가입비중이 43.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GK, L70(이상 25만9600원), 아이폰5(55만원/32G 기준) 비롯한 저가폰 라인업도 10여개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경쟁사가 제기한 연휴기간 가입 인원 축소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고의적으로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임 부사장은 "의도적으로 개통을 늦춘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어떻게 고객 불편을 고의적으로 야기할 수 있느냐"면서 "단순히 보증보험사 연동 문제로 전산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일부 개통에 처리 속도가 늦어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승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부품까지 싹 바뀐 풀 체인지

볼보트럭, 9가지 모델 공개

볼보트럭이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제이드가든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었다.

이날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는 볼보트럭 FH, FM, FMX 시리즈의 덤프트럭과 트랙터, 카고트럭 등 총 9가지 모델이 공개됐다. 발표된 신제품은 차체 엔진과 내·외부 디자인뿐 아니라 부품까지 교체된 트럭이다. 제품 개발에 30억 달러 이상의 비용과 엔지니어링에만 1400만 이상의 시간이 투입됐고, 총 2100만km에 달하는 주행테스트를 했다.

새로운 시리즈는 볼보 다이내믹 스티어링을 전 모델에 기본 장착했다. 이 시스템은 새로워진 스티어링 샤프트가 운전대의 움직임을 적적 기어박스에 전달해 운전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운전대를 조작할 수 있다.

볼보가 자랑하는 인공지능 자동변속기 I-시프트를 탑재하고 있어 신속하고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하다. 고출력의 토크를 발휘해 우수한 주행성능과 높은 연비를 구현했다. 또한, 볼보의 다이나믹 시스템은 운전 중에 지속적으로 연료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다.

볼보트럭은 경기도 평택 볼보트럭 종합출고센터에서 대대적인 시승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정희기자 ferrari@

"티몬·쿠팡 섰거라"···소셜커머스 2세대 반란

티드·돌직구·29CM 신개념 서비스 눈길
네트워킹·역경매·새경험 등으로 호응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티몬,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는 월 거래액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e커머스의 간판 브랜드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하지만 1세대 소셜커머스에 반기를 든 신개념 소셜커머스 브랜드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반란을 예고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와 쇼핑이 결합된 소셜 네트워킹 커머스(SNC) 티드(TID)는 다른 이용자가 '내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판매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어 구입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한 쌍방향 참여형 커머스다.

즉 나의 장바구니를 친구에게 공개하고 그 친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면 나에게도 적립금이 쌓이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이색 제품과 디자이너 소품, 해외 직구상품 등 판타지를 자극하는 물건이 즐비해 2030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출시 두 달 여만에 다운로드 수 10만건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마이콘6'를 1차 출시국 현지에서 직접 확보해 출시 즉시 당첨자에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위치기반 SNS 기업 씨온이 내놓은 달해 집 앱 '돌직구'는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의 음식점 등의 장소를 찾을 때 소비자와 가맹점이 1대 1로 흥정을 벌여 가격을 정하고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용자가 지역, 일정, 인원, 예산 등의 조건을 달아 돌직구 앱에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인근 매장 점주들이 '30% 할인', '고기 2인분 서비스', '음료 무료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해 역경매를 벌인다.

식당에서 실시간으로 각종 조건을 제시하며 입찰을 하면 사용자는 마음에 드는 곳 하나를 선택하면 예약이 끝난다.

돌직구 앱은 출시 이후 전국 8000여개 매장이 가입해 5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상반기에 여행 숙박 재선 등의 업종을 추가한 신규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프리젠테이션(PT) 커머스 '29CM'는 상품이 지닌 역사와 스토리를 함께 제공한다.

단순히 제품의 특성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하나의 브랜드를 선정해 제품과 브랜드의 스토리, 구매 혜택을 사용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듯 전달해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전달한다.

고객은 29CM의 PT에서 브랜드의 상품과 스토리를 경험하고 온라인 팝업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9CM는 최근 탐스, 러쉬 등과 PT를 진행했으며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에 이어 iOS앱을 출시했다.

이정미 티드 마케팅 차장은 "소비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누가 먼저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느냐가 e커머스 시장 2라운드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옵티머스GK·갤럭시S4 미니 '공짜'

휴먼웍스, 엠토커머스 통해 한정판매

옵티머스GK·갤럭시S4 미니가 공짜.

휴먼웍스 엠토커머스를 통해 기간 한정판매. 휴먼웍스는 LG전자 '옵티머스GK'와 삼성전자 '갤럭시S4 미니'를 0원에 기간 한정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엠토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옵티머스GK와 갤럭시S4 미니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KT의 단독 영업과 함께 출고가가 대폭 인하돼 24개월 약정 번호이동 조건 기준으로 사실상 할부원금 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기간 한정 판매 기념으로 옵티머스GK(사진 왼쪽)와 갤럭시S4 미니(오른쪽) 구매 고객에게 전용 액정보호 필름과 플립 케이스, 믹스 퍼플 클리너를 엠토커머스 단독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옵티머스GK는 1.7GHz 퀄컴 스냅드래곤600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5인치 풀HD 디스플레이, 3100mAh 용량의 배터리, 전면 210만·후면 1300만 화소 카메라 등 옵티머스G 프로와 비슷한 하드웨어 스펙을 지녔다.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킷캣을 탑재할 예정이다. 갤럭시S4 미니는 1.7GHz 듀얼코어 프로세서와 4.3인치 QHD아몰레드 디스플레이, 1.5GB 메모리와 1900mAh 배터리의 사양을 갖췄다.

박민규 휴먼웍스 대표는 "옵티머스GK와 갤럭시S4 미니는 공짜폰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뛰어난 성능으로 이미 많은 사용자들의 사용 후기를 통해 검증된 제품"이라며 "KT 번호이동을 통해 무료로 스마트폰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LG전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요" LG전자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11일(현지시간) 어머니의 날을 맞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맘 컨페션(Momconfess.ion)'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LG전자가 1월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접수한 자녀 양육 비결과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LG전자 제공

"카카오톡 게임 비켜" 밴드게임 10종 출시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 게임 플랫폼이 12일 등장했다. 카카오 게임하기가 선점한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할 지 주목된다.

밴드는 네이버의 자회사 캠프모바일의 SNS로 주로 지인이나 친구 등 모임에 가입한 사람끼리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밴드 사용자는 3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캠프모바일은 이날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퍼즐푸'를 비롯해 쉬메이드의 '아르스피어', 아프리카TV의 '역전! 맞짱탁구' 등 10종의 게임을 선보였다.

캠프모바일은 밴드 게임 출시에 맞춰 21일까지 밴드 게임을 내려받는 이용자 전원에게 유료 스티커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S5 등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연다. 밴드 게임은 카카오톡, 라인에 비해 게임 개발사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입점 심사를 없앴다.

캠프모바일은 이달 말 2차 출시 게임을 내놓을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는 개발사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성훈기자

위례신도시 열풍, 하반기에도 "쭉~"

연내 6개 단지, 3500여 가구 물량 쏟아져
쏠림현상 두드러질 듯…꼼꼼한 분석 필요

분양되는 단지마다 흥행 열풍을 잇고 있는 위례신도시에서 올해 마지막 황금부지 물량들이 대거 쏟아진다.

위례신도시는 강남권 입지를 자랑하면서도 분양가는 강남 신규분양 아파트의 반값 수준에 불과해 분양시장의 블루칩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특히 앞서 공급된 단지 대부분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새로 나올 물량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집중되는 모습이다.

◆공원 지하철 가까울수록 웃돈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총 6곳 3511가구다. 이 중 아파트가 3개 단지 2350가구 규모이고, 나머지는 주상복합이다.

전문가들은 같은 신도시라도 각 블록별 입지에 따라 교육·환경 편의시설이 다르고, 이 같은 주거여건의 차이가 향후 가격 및 환금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청약대기자들의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제 위례에서 분양한 단지 중 지하철역과 공원이 가까워 좋은 입지로 꼽기 받는 A2 5블록 '래미안 위례신도시'는 테라스하우스에 최고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 반면 외곽에 있는 단지들은 아직까지 잔여 세대가 남아있기도 하다.

다행히 올해 공급되는 단지들 중 위례신도시의 황금부지로 불리는 신규 지하철역과 트랜짓몰 인근 아파트가 섞여 있다.

지난 2월 계약 나흘 만에 100% 완판을 기록한 A3-6a블록 '위례엠코 센트로엘'과 맞붙어 있으나 수변공원은 더 가까운 A3-6b블록, 지하철 우남역과 인접한 A2-3블록, 송파권역인 C1-5블록 등이 관심 대상이다.

◆대우·GS건설 물량도 포함

현재 가장 먼저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신안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 리베라 2차'로 6월 예정이다. A3-6b블록에 있으며, 전체 696가구 전용면적은 98~101㎡이다. 중심상업지구인 트랜짓몰과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먼링 안쪽에 있고, 위례신사선 중앙역이 가깝다.

같은 달 호반건설은 A2-8블록에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공급한다. 1137가구 전체가 전용면적 97㎡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으로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좋다는 평가다. 트랜짓몰과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A2-3블록의 517가구는 8월께 분양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이 블록은 당초 중견업체가 시공을 맡기로 했지만 최근 GS건설이 다시 시공 계약을 앞두고 있어 향후 '자이' 브랜드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과 경전철 위례신사선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위례신도시 주상복합 부지에서는 12월 대우건설이 C2-4.5·6블록에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430가구를, C2-2·3블록에서 '위례 푸르지오' 21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두 블록 모두 성남권역에 위치했다.

이보다 앞서 9월에는 C1-5블록에서 315가구의 주상복합이 나온다. 올해 분양되는 물량 중 유일하게 송파권역에 위치해 눈길을 끈다. 아직 시공사는 미정이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신동아건설, 농촌 찾아 일손 도와 신동아건설 임직원 50여 명이 지난 주말 협사협촌 자매결연을 한 강원도 영월군 [illegible] 마을을 찾아 주민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고추 지지대를 설치하고 밭에 자란 잡초를 제거했다. /신동아건설 제공

전국 입주 아파트 2만1780가구

전세물량 확보 숨통 트일 듯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달에 비해 7000여 가구 증가한 2만178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달 전국적으로 32개 단지 2만1780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4월 1만4634가구에 비해 7146가구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은 10개 단지 7953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전달 3477가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개 단지 3966가구 ▲경기 5개 단지 3917가구 ▲인천 1개 단지 70가구다.

서울에서는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14·15단지'가 눈에 띈다. 마곡지구 첫 입주단지로 14단지는 전용면적 84~114㎡ 총 1270가구, 15단지는 59~114㎡ 총 1171가구 규모다. 전세 입주가 불가능한 임대 물량도 섞여 있지만 오는 6월에도 1~7단지가 입주에 들어가는 만큼 이 일대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풍무동 '한화 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가 30일부터 주인을 맞이한다. 전체 181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 84~117㎡로 구성됐다. 단지 인근으로 김포도시철도가 지날 예정이고, 현재 인천공항철도 계양역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 풍무초·중·고, 양도초·중, 유현초교가 도보권 내 위치했다. 홈플러스, 김포시청 등도 가깝다.

지방은 22개 단지 1만3827가구가 입주한다. 광주가 6개 단지 3270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2개 단지 2245가구 ▲전남 2개 단지 2230가구 ▲충북 2개 단지 1395가구 ▲전북 2개 단지 1283가구 ▲울산 2개 단지 1216가구 ▲경북 1개 단지 852가구 ▲경남 3개 단지 723가구 ▲강원 2개 단지 613가구 순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물량까지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여름까지 신규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는 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군포·수원시, 세종시,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등은 전세 물량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오피스텔 가격 브랜드에 달렸다

3.3㎡당 200만원 차이

서울 마곡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브랜드에 따라 3.3㎡당 최고 2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곡지구는 최근 오피스텔 분양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곡지구에 선보인 오피스텔은 총 17곳에 이른다. 이 중 대형건설사가 공급한 브랜드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을 상회했으나 중소형건설사가 분양한 단지는 700만~800만원에 그쳤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7월과 11월 공급된 현대엠코 '엠코 지니어스타'과 현대건설 '마곡 힐스테이트'의 분양가는 각각 3.3㎡당 925만원, 910만원이었다. 올 4월 분양된 대우건설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는 960만원까지 뛰었다.

이에 반해 작년 9월 우성건영이 공급한 '마곡지구 우성르보아 2차'는 3.3㎡당 773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헤리움 1·2차', '경동 마르웰', '엠주 아르디에' 등의 중소형건설사의 오피스텔은 800만원 초중반대에 분양됐다.

또 이달 일성건설이 C1-3·6블록에 선보일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플래닛'은 최저 3.3㎡당 700만원 후반부터 시작해 평균 800만원대 초반에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건설사 규모가 클수록 분양가가 비싼 데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전용률이 대부분 40%대로 비슷하게 형성돼 실면적 차이에 따른 분양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단지규모, 브랜드에 따라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공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월세 수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선호도가 높다고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닌 만큼 저렴한 분양가에 투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도시계획시설에 상가 허용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일부 상가나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용도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장에게 이런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KT의 전신전화국처럼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돼 공간이 남아도 이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전환해 임대할 수 있다.

/김두탁기자

'베가 아이언2' 가입하고 경품 받으세요 KT가 12일 출시한 베가의 플래그십 모델인 '베가 아이언2'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축구 사랑 패키지', 야구입장권 등을 증정한다. /KT제공

스마트폰 물로 씻는다

삼성·소니 '방수폰' 출시… LG G3·아이폰6에도 탑재될 듯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데 스마트폰을 속 시원하게 물로 씻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

"수영장이나 욕조에서도 마음놓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이같은 불만에 제조업계들이 답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과 물은 상극'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방수기능을 제택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5년 스마트폰 업계의 핵심 키워드는 '방수'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의 최신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2'는 방수방진 기능(IP58)을 탑재한 것이 장점이다. IP58에서 앞 숫자 5는 방진 등급을, 뒤 숫자 8은 방수 등급을 의미한다. IP58는 수심 1.5m의 물에서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마철과 물놀이 계절에도 침수 걱정없이 통화하고 얕은 물속에서 207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폰이 더러워질 경우 물로 씻어도 고장 날 염려가 없다. '엑스페리아 Z2'와 연동되는 소니의 스마트밴드 'SWR10'도 IP58 규격의 방수 기능이 들어있어 수영장 등에서 침수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가장 인기있는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5'도 IP67 규격의 방수방진 기능을 탑재했다. IP67은 수심 1m 물에서 30분간 견디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일상에서 침수 피해를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는 더 나아가 IP68 규격 방수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P68 규격은 엑스페리아 Z2와 방수 기능은 똑같고 방진 수준은 한단계 높다. 바닷가 모래밭에 떨어뜨려도 고장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폰아레나가 소개한 애플 아이폰6(사진 왼쪽) 추정 사진과 방수 기능이 뛰어난 소니코리아의 '엑스페리아 Z2'

◆중저가폰도 방수 기능

LG전자도 방수폰 출시를 준비중이다. 오는 27일 선보일 예정인 신제품 'G3'가 주인공이다.

G3의 방수 규격은 수심 1m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 IP7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6'도 방수기능을 새로운 무기로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보기술(IT)전문 매체 폰아레나는 아이폰6 모형을 물로 씻는 사진을 최근 공개했다.

폰아레나는 "아이폰6가 아이폰5s 엔 없는 방수 기능을 갖췄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고가폰 뿐 아니라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모두 방수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명품 셀카 비결 모두 담았다

꼼꼼IT 리뷰

■삼성 미러리스 'NX 미니'

2030 여성들은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식당에서 흔한 음식을 먹을 때도 일단 먹거리를 향해 셔터를 누른다.

특히 자신의 얼굴은 물론 친구의 얼굴을 함께 담는 '셀카' 촬영 빈도가 높다. 그런데 카메라를 거꾸로 들어서 자신의 얼굴에 맞춘 뒤 팔을 길게 뻗어 사진을 찍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셀카 잘 찍는 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이상 렌즈 안에 얼굴을 넣기가 매우 어렵고 얼굴이 들어갔다 해도 흔들리는 팔을 주체하지 못해 사진이 망가지기 일쑤다.

삼성의 렌즈 교환형 미러리스 'NX 미니'는 셀카에 특화된 제품이라 할 만하다. 이 제품의 백미인 회전식 디스플레이 덕인데 액정을 들어올리면 얼굴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손쉽게 자신의 모습을 찍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를 들어올림과 동시에 카메라의 전원이 켜지는 기능도 있어 마음이 훈훈해진다.

셀카와 관련된 재미있는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헤드업은 한 뒤 셀카를 찍으려면 셔터 위치 탓에 왼손을 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왼손잡이에게는 더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NX미니가 고안한 기능이 '윙크샷'이다. 액정을 보고 눈을 '깜빡' 하면 2초 뒤 촬영이 된다.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면 3초 뒤 촬영하는 기능도 있다.

셀카를 위해 태어난 제품인 만큼 가볍고 날씬하다. 두께 22.5mm, 무게 158g(카메라 본체 기준)으로 일반적인 커피 한 잔 보다 가볍고 동전 지갑보다 얇다.

민트 그린, 화이트, 핑크, 블랙, 브라운 등 여성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갖춘 것도 장점이다. 2000만 고화소 BSI CMOS 센서와 1/1만6000초 초고속 셔터 스피드 등 스펙도 준수한 편이다.

가격은 9mm 렌즈 번들은 44만9000원이며, 9-27mm 렌즈 번들은 54만9000원이다. 두 렌즈를 모두 갖춘 더블 렌즈 번들은 69만9000원이다. /박성훈기자

사생활 보호·전력 관리 기능까지

삼성, PC에 녹화 방지·전력피크타임 모드 적용

삼성전자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와 전력수급 위기 해소를 위한 솔루션을 PC에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웹캠과 마이크를 통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녹화·녹음 방지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업용 PC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피크타임 관리모드'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웹캠이 내장된 PC에는 사용자의 PC를 해킹해 PC에 장착된 웹캠으로 사용자의 일상 생활을 훔쳐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를 위해 '녹화·녹음 방지 기능'을 탑재, 이 같은 해킹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녹화·녹음 방지 기능은 '아티브 북9 2014 에디션', '아티브 북9 스타일', '아티브 북6 2014 에디션', '아티브 원7 2014 에디션'부터 적용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기업용 PC에 '전력피크타임 관리모드'를 탑재해 전력 소모가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절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피크타임(하루 중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시간대)을 설정하면 해당 시간에 AC전원 사용을 중단하고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피크타임에는 전력을 절약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사용이 적은 다른 시간대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업용 PC 관리 툴을 이용해 직원들의 PC를 중앙제어방식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소규모 기업에서도 직원이 직접 PC에서 해당 기능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아티브 북2(270E)', '아티브 북9(930X5·910S5)', '아티브 북6(630Z5)'에 탑재되어 향후 출시되는 제품에 확대 적용할 전망이다. /박성훈기자

망고식스, 13일부터 식스보틀 3차 예약 판매

1·2차 완판…중고 가격 정상가 웃돌아 멋 내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착한 소비

망고식스 식스보틀 3차 예약판매!
2014년 5월 13일(화) 오전10시 시작합니다

망고식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투명 텀블러 식스보틀(500㎖)의 3차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이 제품은 망고식스의 온라인 쇼핑몰 쇼핑식스(www.shoppingsix.co.kr)에서 판매되며 가격은 1만5000원이다.

식스보틀은 지난 1~2차 예약 판매 시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구매자가 몰리며 조기 전량 매진되는 인기를 모았다. 1차 예약판매가 40분, 2차 예약 판매는 접속자 폭주로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소동이 벌어지며 사이트 복구를 위해 판매 시간을 연기했을 정도다.

식스보틀이 인기를 끌었던 요인은 젊은 여성들이 텀블러를 일종의 '멋내기 소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명한 용기에 커피, 주스 등의 음료뿐만 아니라 딸기, 사과, 포도 등 과일을 보기 좋게 담아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이다.

1~2차 식스보틀 구매자들이 제품을 받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블로그 등 각종 SNS에서는 음료뿐 아니라 생과일, 견과류 등 간식거리를 담은 사진을 촬영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글들이 퍼지면서 식스보틀의 인기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식스보틀을 구매한 직장인 박은정 씨(27)는 "텀블러 7~8개를 갖고 있으며 그 날 입은 옷과 가방에 맞춰 텀블러를 골라 외출한다"며 "예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마시면 더 맛있고 기분도 전환된다"고 말했다.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려는 친환경 소비 심리와 가격 할인도 구매 요소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하루 1~2개 사용하는 종이컵을 줄일 수 있으며 망고식스의 경우 식스보틀로 음료 구매 시 500원을 할인해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식스보틀의 용기 소재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플라스틱 트라이탄(Tritan)이다. 트라이탄은 주로 아기 젖병 등에 사용돼 왔으며 최근에는 유리의 투명함과 가벼운 플라스틱의 장점을 함께 갖고 있어 밀폐용기 등 고급 식자재 용품에 많이 쓰이는 소재다.

망고식스 관계자는 "1, 2차 매진 후에도 구매 문의가 계속 이어져 3차 판매를 하게 됐다"며 "식스보틀로 인해 매장 내 종이컵 사용량이 크게 줄고 있으며 테이크아웃 고객이 많아져 브랜드 홍보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차 판매분은 6월 19일부터 개별 배송된다.

/정혜인기자

식음료업계, '궁합 찾기' 열풍

부족한 영양 채우게 새로운 내용물 첨가한 신제품 늘어

옛 속담에 '짚신도 짝이 있다'고 했다.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자기에게 맞는 짝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런 속담이 최근 식·음료업계의 트렌드를 대변하고 있다.

자칫 한가지의 원료로는 식상하거나 영양적인 면에서 부족할 수 있는 것에 새로운 내용물을 더해 품질을 높이거나, 반대로 당분·염분·칼로리 등 불필요한 것들을 빼서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이른바 식품업계 '영양적 궁합' 찾기가 인기를 얻고 있다.

돌코리아 '후룻볼'은 100% 과일주스에 세계적인 청과브랜드 돌(Dole)이 엄격한 기준으로 고른 과일을 담아 언제 어디서나 맛있는 과일과 100% 주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시럽에 담긴 다른 가공제품과는 차별화됐고 제품 원물 그대로의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농심 켈로그가 출시한 '콘푸로스트 파워볼'은 기존의 '콘푸로스트' 제품 대비 비타민 B군(B1·B2·B6·나이아신)을 40% 증가시켜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5%를 1회 제공량으로 만족시키는 제품이다. 비타민B군은 에너지 생성과 대사에 도움을 준다. 어린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자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다.

대상FNF 종가집이 출시한 '밥반찬으로 먹기 좋은 페어즈 퓨전젓갈' 3종. 기존 명란 젓에 체다치즈를 더해 특별함을 살린 '치즈 명란젓갈', 당근·청량고추 등 국내산 야채를 넣은 '야채 창란젓갈', 국내산 오징어에 호박씨·해바라기씨 등 견과류를 넣어 고소한 '견과류 오징어젓갈' 등 3종으로 구성됐다. 견과류·치즈·야채 등 독특한 재료를 추가해 기존 종가집 젓갈에 비해 염도를 최대 34% 정도 감소시켜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동원F&B가 선보인 '덴마크 아몬듀'는 일반 우유에 아몬드를 넣어 순식물성이며, 우유 속 유당(락토오스)을 없애거나 소화하기 편하게 분해하는 락토프리로 일반 우유에 비해 소화가 잘 되는 제품이다. 품질이 우수한 캘리포니아산 아몬드만으로 만들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실 수 있다. 아몬드가 지닌 풍부한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로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

정식품은 고소한 두유에 젊은 층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파인애플과 오렌지·망고의 진짜 과즙을 넣어 과일의 상큼함과 더한 '베지밀 파인애플 두유'와 '베지밀 오렌지·망고 두유' 2종을 출시했다. 파인애플 두유에는 피로회복·식욕증진에 도움을 주는 파인애플의 과즙 10%가 함유돼 새콤달콤한 맛을 살렸다.

/정혜인기자 pms@metroseoul.co.kr

안전·품질 높인 '안심 먹거리'

첨단 장비 도입, 수백차례 품질 검사 등 투자 확대

5월 14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식품안전의 날이다.

이 날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 지정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식·음료업계에서 최첨단 장비 도입은 물론 수백 차례의 품질 검사, 전담부서 설치 등 관련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런 제품들을 골라 구매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매일유업의 상하목장 '63℃ 저온살균 우유'는 원유 속 세균 수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품은 원유 속 세균 수가 3000/㎖ 미만으로 관리되는 깨끗한 목장만을 선정해 원유를 집유한다. 일반적인 1A등급 원유의 세균 수 기준은 3만/㎖ 미만이다.

풀무원생물 'by NATURE'는 청정한 자연에서 태어나 수백여 가지의 철저한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 제품의 수원지 지질층은 넓은 화강암 지대와 40m 두께의 풍화된 화강토 층은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잘 흡수해 천연 필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 깨끗하게 걸러진 샘물은 또 한 번 까다로운 검사 과정을 거친다. 국내 검사 기준 항목의 10배가 넘는 600여 가지 자체 항목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제품화된다.

동서식품의 체중조절용 시리얼 '라이트업'은 총 144번의 깐깐한 검사 과정을 거친다. 옥수수 알갱이 등 원료에서 120번, 제품에서 24번에 이르는 검사 과정 중 단 한 번이라도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탈락된다.

KGC인삼공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홍삼 제품 생산을 위해 품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정관장 뿌리삼과 홍삼농축액이 한국이슬람교중앙회로부터 할랄 인증(사진)을 획득했다.

/동경일기자

"매끈한 다리를 원하세요?"

제모·지속적인 부기 제거 등 4단계 관리법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왔다. 치마와 샌들로 기분을 내고 각선미를 뽐내고자 하는 여성들이라면 겨우내 소홀했던 발과 다리를 우선 관리해야 한다.

매끈한 다리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단계는 제모다. 다리와 같이 면적이 넓은 부위를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제모하는 방법은 여성용 바디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도루코리빙의 '샤이 스위티'는 6중 면도날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각각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릎 등 굴곡진 부분도 섬세하고 안전하게 제모한다.

겨우내 두꺼운 부츠에 혹사당한 발은 굳은살과 각질 등으로 자칫 불결해 보일 수 있으므로 발 전용 제품으로 굳은살과 각질을 말끔하게 제거해야 한다.

바디 메이크업으로 다리를 날씬하게 표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바디 메이크업 제품은 과거엔 화보 촬영 등 모델들의 몸매를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했지만 최근엔 일반 대중들도 활용하고 있다.

꾀리메라 '바임 핫 바디밤'은 골드와 핑크 펄이 들어 있어 종아리 중앙에 세로 방향으로 바르면 하이라이팅 효과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탄력있는 피부 표현도 가능하다.

각선미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꾸준한 부기제거가 중요하다. 특히 구두를 오래 신고 있어야 하는 직장인은 붓기를 방치하면 살로 자리잡을 수 있어 마사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리의 근육을 풀어주어야 한다. 샤워 후 다리에 바르는 쿨링젤인 어퓨의 '쏘 쿨 레그 릴렉싱 젤'은 페퍼민트 오일과 병풀 성분이 함유돼 다리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준다.

또 용기에 360도로 회전하는 실리콘 롤러가 부착돼 있어 마사지까지 병행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un@[illegible]

기프트테크로 알뜰한 5월 보내기

선물과 재테크를 동시에… 다양한 기획전

최근 결혼정보회사 더원과 한국결혼진흥연구소가 미혼 직장인 734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가 5월은 '허리띠를 졸라 매는 달(지출이 많은 달)'이라고 응답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그만큼 선물 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선물 준비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지출에는 기프트테크(Gift-tech)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프트테크는 선물을 뜻하는 기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선물을 구입하면서 가격 할인, 포인트 적립, 사은품 증정 등 소비활동을 통한 부가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한다.

유통업계는 5월 대목을 맞아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업체별 앱 전용 혜택 및 지역쿠폰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최근 유통가는 앱 전용 이벤트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1만원대 선물용 상품을 모아 판매하는 CJ오클락의 '1만원샵'에서는 상품을 앱으로 구매하면 횟수 제한 없이 배송비를 CJ원포인트로 돌려준다.

웃어른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로는 건강식품을 빼놓을 수 없다. 과거 건강식품은 주로 박스 단위세트로 판매돼 나눔 구매가 불가능했다. 반면 최근 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선보인 소포장, 소용량 제품은 포 단위로 가격이 측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다.

위메프에서는 '5월 가정의 달 감사의 선물 준비하세요' 기획전을 통해 더순수 배도라지즙과 사과즙을 한 팩 당 280원에 판매 중이며 현재까지 2만팩에 가까운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건강식품의 대명사 홍삼도 소포장 상품의 인기가 높다. CJ오클락의 홍삼&건강 선물대전에서는 14일까지 김포파주인삼농협의 6년근 육체 홍삼원액을 590원에 판매 중이다. 세트 상품이 1포 당 700원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낱개로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인 셈이다.

최근 소셜커머스를 비롯한 온라인몰에서 지역 쿠폰 딜이 활성화하면서 레스토랑, 스파랜드, 이용권 등 상품권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20~40% 할인된 가격에 똑같은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 선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illegible]metroseoul.co.kr

강강술래 "감사의 달 건강선물 파격 할인"

한우곰탕 등 최대 40%↓ 캘러웨이 상품권도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알찬 선물세트를 파격할인 판매한다.

온라인쇼핑몰(su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425-9292)을 통해 이달 15일까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3400원,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는 1만99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6봉)는 2만16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이달 30일까지 어린이선물세트(동동심돈가스, 모짜렐라치즈돈가스, 찰찰한우떡갈비, 흑임자 판돈너비아니 각 1세트)는 40% 할인된 3만99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버블건 장난감을 증정한다. 또 영광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말린 국내산 보리굴비세트(10마리 10만4000원, 20마리 7만2000원)도 2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강강술래 전 매장(여의도점 제외)에서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교원증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5월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세계 최정상 골프웨어 캘러웨이의류상품권(10만원)을 증정한다.

자연 친화적인 고기능 소재를 사용하고 절제된 화려함이 느껴지는 고품격 디자인으로 골프투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돋보이게 한다.

/[illegible]기자

서울우유, 스페셜티 카페라떼 모델 김민희 발탁

배우 김민희가 서울우유협동조합 프리미엄 커피 스페셜티 카페라떼의 광고 모델로 선정됐다. 김민희는 5월부터 광고에 나온다.

이번 광고는 도시적인 매력과 개성을 겸비한 김민희를 통해 제품의 차별화된 맛과 분위기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커피는 서울우유 커피연구소가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스페셜티(Specialty) 원두를 선별해 만든 프리미엄 커피다.

미국 스페셜티커피협회(SCAA)가 인증한 스페셜티 커피 원두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코케를 사용해 맛과 풍미가 뛰어나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특히 원두 본연의 우수한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스페셜티 카페라떼에 서울우유 1급A원유만을 사용해 깊고 부드러운 맛과 향을 구현했다고 조합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외식업계, 어린이 고객 마케팅 활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고객이 증가하면서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메뉴가 인기를 얻고 있다.

스쿨푸드는 길거리표 떡볶이부터 까르보나라 떡볶이까지 다양함을 맛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BHC의 신메뉴인 '별에서 온 코스치킨'도 어린이들을 고려해 영양과 맛을 업그레이드했다. 시금치와 마늘·양파 등을 입혀 영양가 있는 치킨을 만들었으며 신선한 채소와 치즈볼이 어우러져 치킨 하나에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

'더 놀부직팔 화덕구이'는 스페셜 세트메뉴를 통해 어른과 아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illegible]기자

스쿨푸드 길거리[illegible]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현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tcast

이 프로그램은 마일리캐스트 ▼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tmtcast.com

봄 향기에 흠뻑 빠져볼까

관광공사 추천 5월에 가볼만한 곳

한국관광공사가 5월을 맞아 '봄 향기 넘치는 우리 고장으로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나들이 장소를 추천했다. 봄의 마지막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 나들이 명소들을 소개한다.

◆지리산 바래봉

먼저 전북 남원은 경남 함양, 전남 구례 등과 함께 지리산을 품은 고장이다. 5월이 되면 지리산의 높은 산자락도 봄기운을 머금는데 그중에서도 남원에 위치한 지리산 바래봉(사진)은 5월에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물드는 곳이다. 특히 지리산허브밸리에서 시작되는 바래봉 등산길은 장엄하게 펼쳐진 지리산의 능선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신록이 아름다운 광한루원에서는 다채로운 상설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갈모봉산림욕장

경남 고성에 위치한 갈모봉산림욕장은 편백, 삼나무 등이 울창해 꾸질 나들이 장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산책로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면 편백 조각을 깔아놓은 길을 만날 수 있으며 바위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신록의 바다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또 고성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고성박물관과 고성 탈박물관에 들러 잠시 숨을 고른 뒤 당항포관광지에서 요트를 탈 수 있다.

◆정선 곤드레

강원 정선의 봄은 더디지만 향긋하다. 해발 800m 산밭에서 자란 산나물이 시장에 깔리는 5월이 돼야 정선의 진정한 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긋함을 더해는 정선 산나물 중 곤드레나물은 맛이 좋고 영양소가 풍부해 봄철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이다. 게다가 아리힐스 스카이워크와 아시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짚와이어는 여행자에게 짜릿한 추억을 선물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

5월, 신라스테이 알뜰 패키지

에버랜드 나들이 즐기는 '스위트 메이', 여성들을 위한 '메이 퀸즈'

SHILLA STAY

신라스테이(www.shillastay.com) 동탄이 서울 도심을 벗어나 에버랜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스위트 메이'와 여자친구들을 위한 '메이 퀸즈' 패키지를 선보였다.

스위트 메이는 에버랜드로 나들이를 갈 수 있는 커플용 주말(토·일요일) 상품이다.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대인 2매 ▲셰프스 미스 베이커리 세트(2인용) ▲2인 조식 ▲객실 1박 등으로 구성돼 있다. 5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19만원(세금 별도)이다.

메이 퀸즈는 여자친구들끼리 파티를 즐기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4인용 여성용 패키지다. 바에서 JP 슈네 파송 카시스 2병과 치즈 플레이트로 구성된 와인 세트를 즐길 수 있으며 4인 조식과 객실 2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5월 한 달간 판매되며 주중에는 42만원, 주말은 31만원(세금 별도)이다.

◆경기 주요 관광지 나들이에 최적

신라스테이 동탄은 강남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어 경기도 일대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뽀로로파크는 도보로 5분 거리이며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호암미술관은 신라스테이에서 자동차로 25분 정도 걸린다. 게다가 힐링 휴가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화성 전곡항까지는 70분, 제부도·국화도·입파도까지는 90분 안에 도착 가능하다.

한편 신라스테이는 호텔신라가 새롭게 선보이는 고급 비즈니스호텔 브랜드다. 문의 02-2230-3000 /정혜인기자

곤지암리조트 '화담숲 패키지'

내달 19일까지, 1박+입장권+사우나 할인권

서브원 곤지암리조트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19일까지 곤지암의 봄을 만끽하며 힐링을 즐길 수 있는 '화담숲 패키지'를 판매한다.

자연과 휴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패키지는 고품격 객실에서의 주중 1박과 봄꽃으로 물든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는 화담숲 입장권 2매, 사우나 50% 우대 쿠폰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객실 타입에 따라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취사를 하지 않는 호텔형 객실이 포함된 패키지의 가격(세금 포함)은 12만원, 콘도형 객실이 포함된 패키지는 13만원이다.

곤지암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자연환경 복원과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곳으로 이끼원을 비롯해 진달래원, 수국원, 반딧불이원 등의 주제 정원으로 이뤄져 있다. /황재용기자

"강원도 맛보러 오드래요"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다음달 30일까지 한식당 사비누에서 '강원도 향토 상차림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상차림은 일품요리와 반상요리로 구성돼 있으며 일품 요리로는 해산물 냉채와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감자 옹심이 칼국수, LA갈비 등이 준비된다. 또 반상요리는 호박 들깨죽, 감자 에게전, 오징어 순대와 더덕구이, 곤드레 불고기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세금을 포함한 일품요리의 가격은 2만5500원, 반상요리는 4만2000원이다. 문의 02)2222-8635 /김학철기자 kimc0814@

데이트의 성공 비결은 '디테일'

사소한 부분까지 센스있게

데이트의 계절 5월이다. 요새는 남자들도 패션이나 뷰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남자들이 사소한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센스'들이 있다.

MBC아카데미뷰티스쿨 인천구월캠퍼스 윤은미 원장은 "패션센스가 아무리 뛰어나도 지저분한 손톱이나 불쾌한 향은 호감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여성들은 의외로 작은 부분에서 호감을 느끼거나 그 반대가 되므로 여성들이 눈여겨보는 매우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미지를 결정짓는 차이, 손톱

남자들이 의외로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손이다. 손은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맞잡게 되는 신체 이자 대화 도중 끊임없이 제스처를 취하며 사용하는 부위다. 만약 제때 깎지 않아 손톱이 길거나 주변에 큐티클이 지저분하게 일어나 있다면 깔끔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

손톱을 깎을 때 가장 좋은 길이는 손끝과 같은 길이로 자르는 것이다. 손톱을 자른 후에는 손톱을 다듬어주는 네일 파일로 손톱 모양을 둥글게 다듬어 주면 더욱 깔끔하게 손톱을 정리할 수 있다.

평소에는 수시로 핸드크림을 발라 손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한 달에 한 번 핸드 마사지를 해주면 더 좋다. 스스로 관리가 어렵다면 네일숍에서 케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자 인상의 80%는 눈썹에서

눈썹은 얼굴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남성들은 얼굴에 변화를 주는 것이 쉽지 않아 눈썹이 인상에 주는 영향이 크다.

눈썹 정리의 관건은 자연스러움이다. 정리돼 있지 않으면 지저분한 인상을 주고 너무 정돈돼 있으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눈썹 정리를 위해서는 본래의 눈썹 형태에 따라 다듬는 것이 좋다.

우선 눈썹칼로 미간에 난 잔털부터 정리한다. 그 다음 눈썹빗으로 눈썹을 빗은 후 눈썹 가위를 이용해 지저분하게 자란 부분을 모양에 맞춰 잘라주고 눈썹 주변의 잔털을 다시 한 번 다듬는다. 혼자 관리하기 어렵다면 반영구 눈썹 문신을 하거나 눈썹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아이브로바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남자의 향기가 남다르다

오감 중 사람에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후각이다. 불쾌한 체취를 풍기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은 바로 청결이다. 남성은 땀 분비가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땀 분비를 억제해주도록 한다.

평소 향수를 사용하는 타입이라면 샴푸의 향과 향수의 향이 뒤섞여 오히려 기분 좋지 않은 향기를 남길 수 있으므로 샴푸는 향이 없는 제품을 선택한다. 향수는 맥박이 뛰는 곳에 뿌리면 장시간 은은한 향을 유지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hunal0404@metroseoul.co.kr

metro entertainment

"정조 등근육, 상징일 뿐"

제대 후 영화 '역린'으로 돌아온

현빈

배우 현빈(33)은 김태평이라는 본명답게 인터뷰 내내 차분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2012년 제대 후 영화 '역린'으로 대중과 첫 소통을 시작한 그는 눈을 마주치며 침착하게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다. 데뷔 때부터 항상 정상의 위치인 것 같다는 질문에 "큰 파도는 안 탄 편이죠. 그 파도를 안 타려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답니다"라고 지나가듯 말하는 한 마디가 믿음직스럽게 들린다.

◆ 혹평에 마음 편해져

영화 '역린'은 개봉 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영화는 개봉 2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누적 관객수 320만 명을 돌파했다.

"걱정이 됐지만 관객들이 '내가 보고 판단해 볼게'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정재영 조정석 한지민 등 많은 배우들이 나오니까 현장 무대인사 분위기도 흔미(?)를 사는 느낌이죠."

오히려 혹평이 300만 돌파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예고편이 나가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정말 컸다. 그만큼 실망감도 클까 봐 걱정됐었는데 오히려 혹평 기사로 조금 편해졌다"고 말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중용 23장 구절은 작품의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한 마디다.

"사극이 작용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말이라고 봐요. 중용 구절의 경우 실제 일상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문득 문득 생각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회도 사소한 것 하나씩만 바꿔가면 멀리 봤을 때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독보적인 정조 역 표현

◆ 흉내내지 않은 현빈표 정조 완성

개봉 전 공개된 현빈의 등 근육은 단연 화제였다. 그는 "정조의 모습 중 하나일 뿐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련했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정말 화제가 됐다"며 부끄러운 듯 답했다.

근육은 '잘 운동을 하는 정조, 세밀한 근육'이라는 한 줄의 지문 때문에 완성됐다고 한다.

"조선시대라면 어떤 운동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예쁜 근육보다는 모래주머니나 턱걸이 등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주로 했죠. 실제로는 노출을 즐기지 않아요 하하."

정조를 연기한 사람은 현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역린'의 정조는 현빈 그 자체라는 평가가 지배했다. 그는 관련 작품을 일부러 안 봤다고 말하며 "드라마 '친구'를 찍을 때 경험했다. 영화 '친구'를 정말 많이 봤는데 막상 촬영장에서 역효과가 났다. 영화처럼 연기하고 있으면 들킬 것 같이 느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인물이다 보니 서적과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다. 대사 톤도 감독님이 사극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눈빛 연기에 치중했다는 그는 "정조 즉위 1년의 상황이었고 당시 나이가 26세였다. 나약해 보이지 않아야 하면서 왕 흉내를 내는 걸로 보여서도 안 됐다. 그렇다 보니 몸에 제약이 있었고 얼굴로 표현하려고 했다"며 "늘 긴장한 상태로 있는 정조, 눈으로 많이 느낄 수 있게 연기했다"고 현빈만의 독보적인 정조를 완성시킨 비결을 설명했다.

◆ 차기작 조급하지 않다

'역린' 후 현빈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계획하지 않고 영화든 드라마든 마음에 들면 하는 편이라며 조급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때 대중이 원하는 모습과 제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갈등했죠. 생각해보니 '내 이름은 김삼순' 때의 현빈을 좋아해줬는데 그 이후 로맨틱 코미디를 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선택했던 게 '시크릿 가든'이었어요. 큰 사랑을 받았죠. 그렇다고 계속 그쪽 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고민할 부분이죠."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전효성 "나는 지나 언니와 달리 건강미"

솔로 데뷔 차별화 선언 몽환적 '은밀함' 내세워

그룹 시크릿의 리더 효성(사진)이 아니다.

가창력과 비주얼을 겸비한 가수 전효성이 홀로서기에 나선다. 5월 가요계는 개성과 매력으로 무장한 여가수들이 잇따라 신곡을 발표하며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 전효성도 솔로앨범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효성은 12일 삼성동 라마다 호텔 글렌 뱅가드에서 첫 솔로앨범 '탑 시크릿'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번 앨범은 오랜 준비 기간과 철저한 노력, '히트제조기' 이단옆차기의 지원사격으로 완성됐다.

전효성은 "지난해 여름부터 준비한 곡들로 앨범을 채웠다"며 "앨범 재킷 사진부터 뮤직비디오 작업에까지 참여했다"고 첫 솔로 앨범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타이틀곡 '굿나잇키스'의 '범어 살어요'를 공개한 전효성은 블랙 시스루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매혹적인 보디 라인을 부각시켜 한층 완성도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그룹 시크릿의 강점이 화려한 퍼포먼스라면 솔로 전효성은 은밀함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특별히 콘셉트를 '섹시'로 잡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몽환적이고 달콤한 속삭임 같은 은밀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효성은 비슷한 시기에 솔로 여가수로 활동할 지나, 티아라 지연과 경쟁하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재밌게도 모두 작곡가 이단옆차기에게 곡을 받았다.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각자 다른 스타일의 곡을 준 것 같아 다행이다"며 "혼자 활동했으면 외로웠을 텐데 함께 윈-윈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나 언니와 지연은 마른 체형이지만 저는 건강미가 있어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두 사람과의 차별화 전략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곡은 자장가 같고 재워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꿈 속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팬들과 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깜찍한 포부를 전달했다.

/김성일기자 ysw@metroseoul.co.kr

"엑소 돌아왔다" 컴백쇼 1만 운집

중독 무대 선사하는 엑소(큰 사진), 환호하는 관객들(작은 사진)

중국 전역 들썩… 음악프로 벌써 1위

아시아 대세 그룹 엑소가 중국 컴백쇼를 성황리에 마쳤다.

엑소는 11일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새 미니앨범 '중독'을 알리는 '엑소 더 2ND 미니앨범 컴백쇼 in 상하이'를 열었다. 엑소만의 차별화된 음악과 다이내믹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1만여 관객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엑소는 타이틀곡 '중독'과 수록곡 '런' 등 신곡 무대는 물론 '마마', '늑대와 미녀', '으르렁' 등 히트곡 퍼레이드까지 총 7곡을 선사했다. 또 지난해 각종 가요 시상식을 휩쓴 엑소의 활동 하이라이트 영상 공개, 새 미니앨범 및 '중독' 안무 소개, 게임 등 다채로운 순서로 현지 팬들과 교감을 나눴다.

이번 컴백쇼에는 동방위성TV 홈페이지와 웨이보 등을 통해 진행된 사진 응모 이벤트에 당첨된 1만여 명을 초대해 중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미처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도 공연장 밖에 대거 운집해 엑소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엑소 컴백쇼는 중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방송에 특별 편성됐고 추후 동방위성TV로 중국 전역에 방송될 예정이다. 중국 활동 유닛인 엑소-M은 전날 중국 CCTV 음악 프로그램 '글로벌 중문음악 방상방'에서 '중독'으로 1위를 차지하며 현지 열풍에 불을 붙였다.

엑소는 새 미니앨범 '중독'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반 활동에 돌입했다.

/유순호기자 sun@

인피니트 로맨티스트로 복귀

그룹 인피니트(사진)가 로맨티스트로 돌아온다.

컴백을 앞둔 인피니트는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 앨범 '시즌2'의 타이틀 곡 '라스트 로미오'의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다. 고풍스러운 배경에 화이트 수트를 차려 입은 인피니트 멤버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라스트 로미오'라는 제목처럼 사진 속 로맨틱한 분위기는 인피니트의 새로운 변신을 예고했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거친 남성미를 대표하던 인피니트가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변신해 새 앨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인피니트의 소속사 측은 "그 동안의 활동을 시즌1이라 규정한다면 앞으로의 활동을 시즌2로 새롭게 다가가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피니트는 지난해 '남자가 사랑할 때'와 '데스티니'로 활동했으며 하반기에 걸친 월드투어 '원 그레이트 스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0개월 만에 컴백한다.

/김성일기자

진구, '쓸친소' 고백녀와 결혼

1년 교제 4세 연하 일반인과 9월 예식

배우 진구(사진)가 결혼한다.

진구 소속사 관계자는 12일 "진구가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전원선 별라지움에서 결혼한다"고 밝혔다.

예비 신부는 4세 연하의 일반인이며 두 사람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진구는 지난달 열애 사실을 인정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고 이에 일각에서는 속도 위반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결혼 적령기라 신중하게 생각했고 최근 상견례 후 결혼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안다"며 "진구와 여자친구가 지난해 말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갑자기 결혼 날짜가 공개돼 주변에서 속도위반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구는 지난해 12월 MBC '무한도전' 쓸친소 특집에서 "짝사랑 중이지만 아직 고백을 못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

40대 꽃미남 스크린 장악

차승원·장동건·정우성·이정재 영화 맹활약 예고
여장남자·킬러·불륜남·격투기선수 등 파격 변신

40대 미남 배우들이 스크린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하이힐'의 차승원, '우는 남자'의 장동건, '마담 뺑덕'의 정우성, '빅매치'의 이정재 등이 파격적인 변신으로 맹활약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차승원은 다음달 개봉할 '하이힐'에서 범인을 단숨에 제압하는 타고난 능력으로 경찰은 물론 거대 범죄 조직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존재로 불리지만, 남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면의 여성적인 자아로 고뇌하는 지욱 역을 연기한다.

이 영화로 장진 감독과 6년 만에 의기투합한 그는 극중 여장에 도전하는 한편 밀도 높은 감정 연기를 펀다. 차승원은 12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나보다는 장진 감독에 대한 믿음이 컸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 '잘해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12일 열린 영화 '하이힐' 제작보고회에서 활짝 웃는 차승원. /연합뉴스

장동건은 다음달 5월 개봉 예정인 '우는 남자'에서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과 의기투합해 격렬한 액션 연기를 펼친다. 단 한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딜레마에 빠진 킬러 곤 역을 맡았다. 전신 문신을 하는 등 기존의 신사적인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정우성은 '마담 뺑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독한 사랑과 욕망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어가는 학규 역으로 관객과 만난다. 엄일규 살아나 어린 신인배우 이솜과 파격적인 불륜 연기를 펼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정우성

마지막으로 이정재는 '빅매치'에서 하루 아침에 살인누명을 쓴 대한민국 최고의 격투기 스타 최익호 역을 맡았다. '도둑들'·'관상'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그는 이 영화로 다시 한번 흥행을 노린다.

/박신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비 '더 프린스' 칸 입성

가수 겸 배우 비(사진)의 할리우드 복귀작 '더 프린스'가 제67회 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11월 개봉 예정인 '더 프린스'는 칸 영화제 필름 마켓에서 해외 영화 관계자들에게 소개된다. 이 영화는 '스피드 레이서'로 할리우드에 데뷔한 비가 '닌자 어쌔신' 이후 5년 만에 출연한 영화이자 군 제대 후 복귀작이다.

브라이언 A. 밀러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제이슨 패트릭·브루스 윌리스·존 쿠삭·50센트 등 해외 유명 스타들이 총출동 했다. 비는 갱단 두목(브루스 윌리스)의 심복 역을 맡아 악역 연기를 펼친다. 그러나 비는 칸 영화제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박성훈기자

'코미디의 길' MBC 개그 살릴까

이홍렬·박준형·정성호, 시청자 공략
새 얼굴에 맞는 신선한 웃음이 과제로

이홍렬

대박코너 '브라보 마이라이프' '골방주식회사' '개 사 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때 주춤했던 MBC 개그 프로그램이 '코미디의 길'로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다.

지난 11일 첫 방송된 '코미디의 길'은 이홍렬의 진두지휘 아래 과거 MBC '코미디 르네상스'를 꿈꿨던 정성호와 KBS2 '개그콘서트'의 수장이었던 박준형이 후배 개그맨들과 함께 시청자들의 웃음을 공략했다.

눈길을 끈 것은 대부분의 콩트가 사회 세태 풍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정성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기러기아빠들의 외로운 현실을 그렸으며, '개 사 세(개들이 사는 세상)'는 애견 훈련 학교에서 펼쳐지는 개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이 겪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꼬집었다.

박공개 코너 중 하나인 '골방주식회사'는 청년백수들의 서러운 모습을 코믹하게 담아 공감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에서 이홍렬은 "과거 MBC는 코미디의 왕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침체돼 있는 것 같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박준형과 정성호를 비롯한 최국·손헌수·오정태·양희성·정명옥·김주연 등 MBC 간판 개그맨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인 개그맨들의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과 선배 개그맨들의 식상한 연기가 '코미디의 길'이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았다.

특히 박준형은 '개그콘서트'와 전작 '코미디에 빠지다'에서 선보였던 연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정성호 역시 tvN 'SNL 코리아'에서 보여줬던 캐릭터를 답습해 식상함을 안겼다.

또 MSG '그래도 나가 버지 않았어' 등 직구 등 전작에서 볼 수 있었던 코너가 그대로 유지된 것도 신선함을 반감시킨 요소로 작용했다. 일각에선 '코미디의 길'이 '개그콘서트'와 '코미디 빅리그' 등의 경쟁 프로그램을 뛰어넘으려면 새로운 얼굴에 맞는 신선한 웃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지원기자 [illegible]

스릴러 열풍 스크린으로

'더 바디' 추리 본능 자극 22일 개봉

안방극장에 불고 있는 스릴러 열풍이 스크린에도 불 전망이다.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더 바디'가 22일 개봉을 앞두고 관객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영화는 남편에게 살해된 한 여자의 시체가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 '줄리아의 눈' 제작진의 신작이다.

개봉 전부터 시체 검시소를 배경으로 한 이미지와 '내가 죽인 아내가 사라졌다'는 카피로 구성된 포스터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댓글 1만 개, '좋아요' 4만 건을 돌파하는 호응을 이끌어냈다.

'더 바디'는 시작부터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공개한다. 그러나 아내의 시체가 시체 검시소에서 사라지면서 자신의 살인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남편은 혼란에 빠진다.

제작진은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편과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는 형사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영화는 아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들을 연이어 등장시켜 관객의 추리 본능을 자극한다. 결말에서는 충격적인 반전이 그려져 강력한 긴장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 '줄리아의 눈'에서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기로 국내 영화팬들에게 존재감을 알렸던 벨렌 루에다가 사라진 아내 마이카를 연기한다. 이 밖에 오라 가리도·호세 코로나도·휴고 실바 등 연기파 배우들이 참여했다. /박성훈기자

더 바디

태극전사 입장!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가운데)과 1차 소집 대상자들이 12일 오전 소집 훈련이 실시되는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대표팀은 이날 소집을 시작으로 30일 전지훈련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출국할 때까지 파주에서 월드컵 대비 훈련을 이어간다. 왼쪽부터 정성룡(수원), 김승규(울산), 이범영(부산), 기성용(선덜랜드), 홍명보 감독, 박주영(왓포드), 이청용(볼턴), 이근호(상주), 김신욱, 이용(이상 울산). /연합뉴스

심판, '출루머신' 추신수 견제?

주심 판정에 불만 "퇴장 각오" '분노'의 시즌 4호 대포 작렬

시즌 4호 홈런을 쏘아올린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심판의 이해하기 힘든 볼 판정에 폭발했다.

12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4호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지만 나머지 세 타석에서 모두 삼진을 당한 추신수는 이날 주심의 볼 판정에 분노했다. 이날 주심 비스어를 쓴 빅 카라파자(35)는 2010년 빅리그 심판에 데뷔한 비교적 젊은 편이다.

추신수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낸 것은 1회말 첫 타석 스트라이크 판정부터다. 3볼 1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공이 두 번 연속 스트라이크로 선언됐다. 볼넷 출루가 됐어야 할 상황이 삼진 아웃으로 바뀌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출루머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신수는 선구안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중계 화면상으로도 확연한 볼로 보였다. 그럼에도 거푸 스트라이크로 선언하자 이례적으로 심판에게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항의했지만 결국 아웃당한 추신수는 두 번째 타석인 4회말 상대 투수 존 래키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분노의 홈런(1점)을 때렸다. 하지만 팀은 2-5로 패했다.

경기 직후 추신수는 "오늘 퇴장도 각오했다"며 "이번 3연전에서 주심의 스트라이크·볼 판정 하나가 팀의 승패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기분 나빴다. 두 번째 타석에서도 그런 판정이 나왔다면 퇴장을 각오하고 대들었을 것"이라고 화를 참지 못했다.

한편 추신수는 이날까지 타율 0.333, 출루율 0.465에 4홈런 11타점 19득점을 유지, AL 타율·출루율·OPS(출루율+장타율) 선두를 달렸다.

/장병호기자 yew@metroseoul.co.kr

추신수가 12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서 4회에 시즌 4호 홈로 홈런을 터뜨린 뒤 솔로 홈런을 터뜨린 뒤 담담한 표정으로 베이스를 돌고 있다. /AP연합

맨시티 EPL 우승은 '돈의 힘'

4년간 1조7200억 투자 — 2년 만에 또 정상

맨체스터 시티의 주장 뱅상 콩파니(가운데)가 우승을 확정지은 뒤 트로피를 들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2013~201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맨시티는 11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2-0으로 꺾었다. 최종전에서 역시 승리한 리버풀(승점 84)이 마지막까지 추격해 왔지만 맨시티는 승점 86을 기록하며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승은 2011~2012시즌 이후 2년 만이며 1936~1937시즌, 1967~1968시즌을 포함해 역대 네 번째다. 올 시즌에는 리그컵도 따내 '더블' 달성에 성공했다.

100년이 넘는 역사에도 만년 하위팀의 수모를 벗지 못하던 맨시티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왕족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에게 인수되면서 화연히 다른 팀으로 태어났다. 재산이 200억 파운드(약 34조원)에 달한다는 만수르 구단주는 4년간 1조7200억원을 투자했다.

영국 신문 가디언에 따르면 맨시티는 지난 시즌 유럽 축구팀 가운데 가장 많은 돈(약 4000억원)을 선수 연봉에 썼다. 다비드 실바(약 437억원), 야야 투레(약 440억원), 뱅상 콩파니(약 104억원), 에딘 제코(약 470억원) 등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기록하며 영입한 주전 선수들은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

초반부터 웨스트햄을 강하게 몰아붙인 맨시티는 전반 39분 사미르 나스리의 오른발 슛으로 기선을 잡았다. 후반 4분에는 벨기에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인 뱅상 콩파니의 추가골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리버풀은 이날 뉴캐슬에 2-1로 승리를 거뒀지만 역전 우승을 이루지는 못했다. 리버풀의 스트라이커 루이스 수아레스는 31골로 득점왕에 올랐지만 우승컵은 차지하지 못했다.

/유순호기자 suno@

김성근 마지막 꿈 실현될까?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언론들은 지난 11일 양상문 LG 감독 부임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일요일 오후의 빅뉴스였는데 덩달아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사진)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LG가 김성근 감독에게 사령탑 부임 의사를 타진했고 김 감독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성근 관련 기사는 포털 사이트의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올랐다. 그만큼 김성근은 여전히 지대한 관심을 받는 지도자임을 재확인한 셈. 김 감독의 팬들은 그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근의 리더십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다. SK 지휘봉을 놓고 고양 감독으로 부임한 김 감독은 기량이 떨어진 선수들을 끌어 모아 3년 만에 강팀으로 탈바꿈시켰다. 프로 2군과의 교류전에서 15승6패4무(7할1푼4리)를 기록하고 있다. 고양을 상대했던 팀들은 "대단히 이기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김성근의 최대 장점은 선수의 마음을 움직인다. 진실함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데 탁월하다. 해박한 야구지식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경기에서는 상대를 압박하는 능수능란한 전술을 펼친다. SK 재임시절 3번의 우승과 1회 준우승의 실적이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72세의 나이만은 아닌 것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프런트가 껄끄러워했다. 2011년 SK와 결별사태 이후 각 구단의 시각은 김성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감독 후보 리스트에 올려놓고 선뜻 낙점 못한 이유였다. 그러나 LG 사례처럼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퇴색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오프시즌에는 김성근 주가가 높아질 듯 하다. 올해 감독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구단은 한화, KIA, SK 등이다. 롯데도 4강 변수가 있다. SK는 후보군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구단들은 김성근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대대적인 팀 개조와 성적이 필요하다면 김성근 만한 적임자는 없다. 과연 김성근의 마지막 승부무대는 마련될까.

/이선호 야구전문기자

첼시 지소연 시즌 4호골

지메시 지소연(22·첼시 레이디스, 사진)이 시즌 4호골을 터트리며 절정의 골감각을 과시했다.

지소연은 12일 영국 서리의 킹스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여자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준결승에서 후반 22분 선제골을 넣었다. 지난달 14일 데뷔전이던 브리스톨 아카데미와의 FA컵 5라운드에서 경기 시작 1분 만에 골을 기록했던 지소연은 5일 컨티넨탈컵 조별리그 왓퍼드 레이디스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는 등 매서운 공격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첼시는 지소연의 선제골에도 아스널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5로 져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한편 지소연은 이날 베트남으로 떠나 현지에서 훈련 중인 한국 대표팀에 합류, 14일 개막하는 여자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유순호기자